

## 그대를 뭐라고 부을까요?

### - 여성의 관점을 고려한 번역어 찾기 -

유연희\*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개역개정』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와 표현에 대해 재고하고 개정을 위한 번역어를 제안한다. 특히 다양성과 포괄성이라는 시대정신 속에서 페미니즘과 젠더에 대한 최근 연구를 반영하여 성서 번역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 단어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민감성 수준을 말해주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성서 번역에서의 단어 선정은 시대의 주요 논의와 감수성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다룰 것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창세기 2장에서 ‘하아담(חַוְּוָה)’을 ‘사람’으로 일관성 있게 번역하기, ‘돕는 배필’ 대신에 ‘구해주는 상대’나 ‘마주하는 구원자’로 번역하기, ‘남자-아내’ 대신에 ‘남자-여자’라는 짝말(paired word)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둘째는 『개역개정』이 ‘창기’, ‘창녀’, ‘기생’, ‘음녀’ 등으로 번역한 ‘조나(זִנָּה)’에 대해 ‘성매매자’라는 번역어를 제안한다. 셋째는 예레미야 44:19에서 ‘우리의 남편들 허락 없이’에서 ‘허락’을 빼고 ‘우리 남편 없이’ 또는 ‘우리 남편을 빼고’로 번역하기를 제안한다. 넷째는 이사야 23:4에서 ‘청년들-처녀들’을 ‘젊은 남성-젊은 여성’으로 번역하기를 제안한다.

\* 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비블로스성경인문학연구소 연구원. [yaniyoo@hanmail.net](mailto:yaniyoo@hanmail.net).

## 2. 창세기 2장에서 일관되고 포용적인 번역어 선택하기

### 2.1. ‘(하)아담(אָדָם)’을 일관되게 ‘사람’으로

첫 사람은 원문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7절) 잠들게 하고 ‘옆’(צַלַּע) 썰라, 출 26:20 참조)을 취해 여자로 만들 때까지(22절) 내내 ‘하아담(אָדָם)’으로 나온다.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18절까지는 ‘사람’으로 번역하다가 19절부터 고유명사인 ‘아담’으로 번역한다.<sup>1)</sup> 19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다”와 같은 이름 짓는 관용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고유명사를 사용할 맥락이 명시된 것도 아니므로 아담을 쓰는 것은 무리이다.

필리스 트리블(P. Tribble)은 이 첫 사람이 남자 아담이 아니라, 성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흙사람’(earth creature)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2)</sup> 즉 하나님이 이 흙사람의 ‘옆’을 떼어 여자를 만들 때 남자도 생긴다. 트리블이 처음 흙사람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을 때는 반론이 여럿 나왔었다.<sup>3)</sup> 그 후로 더 많은 학자들이 트리블의 해석을 따르는 추세인데, 미케 발(M. Bal)은 동조하며 이 흙 피조물이 “이름도 성별도 활동도 없다”고 관찰한다.<sup>4)</sup> 다니엘 보야린(D. Boyarin)도 ‘여자’라는 성이 없으면 ‘남자’도 없고, 그러니 흙사람은 젠더가 없다고 본다.<sup>5)</sup> 일찍이 랍비들과 교부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두 번의 인간 창조 이야기에 당혹스러워하며 안드로진(androgyne), 영적이고 육적인 창조 등 다양한 설명으로 이해하려 했다.<sup>6)</sup> 이 모든 선행 논의는 첫 사람을 남자로 전제하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아담을 최대한 일관성 있게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무난하고 최근 논의에 더 잘 어울린다.

1) 참조. NRS는 ‘하아담(אָדָם)’을 2장 내내 ‘(the) man’으로 번역한다.

2) 필리스 트리블,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 유연희 역 (안양: 태초, 1996), 특히 4장;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78).

3) 예를 들면, S. Lanser, “(Feminist) Criticism in the Garden: Inferring Genesis 2-3”, *Semeia* 41 (1988), 72; D. Jobling, *The Sense of Biblical Narrative: Structural Analyses in the Hebrew Bible II*, JSOTS 39 (Sheffield, UK: Sheffield Academic Press, 1986), 41-42; J. Gellman, “Gender and Sexuality in the Garden of Eden”, *Theology & Sexuality* 12:3 (2006), 323-324.

4) M. Bal, *Lethal Love: Feminist Literary Readings of Biblical Love Stories*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112.

5) D. Boyarin, *Carnal Israel: Reading Sex in Talmudic Culture* (Oakland,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37. 주 13.

6) 랍비들과 교부들의 논의를 요약한 것으로는 유연희, “창세기 1-3장을 퀴어링하기”, 「구약논단」 26:4 (2020), 192-194 참조.

## 2.2. ‘돕는 배필’을 ‘구해주는 상대’로(창 2:18, 20)

『개역개정』은 ‘에제르 케넥도(עֵצֶר קֵנֶדוֹ)’를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한다(18, 20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배필’을 ‘부부로서의 짝’이라고 설명한다.<sup>7)</sup> 즉, 배필이라는 단어는 결혼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각종 동물을 ‘에제르 케넥도’의 대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동물이나 새와의 결혼을 염두에 두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기서 결혼 개념인 ‘배필’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에제르’는 ‘돕다’(help), ‘구원하다’(succor)를 뜻하는 ‘아자르(אָזַר)’에서 나온 남성 명사이다.<sup>8)</sup> 문자적으로는, 첫 사람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동물과 새 중 어떤 남성형 상대를 염두에 두셨다고 해야 더 맞을 것이다. ‘에제르’에서 ‘여자 배필’을 상상하는 것은 결혼한 이성애자 남성 번역가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학자들은 18절과 24절(“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여자와 결합하여 …”)이 2장 전체의 주제를 제시한다고 본다. 즉, 2장의 주제는 공동체, 관계, 교제이지, 결혼, 부부, 부모와의 관계, 가족이 아니다.<sup>9)</sup> 그러므로 ‘배필’은 이 맥락에서 적합하지 않은 번역어이다.

또한 ‘에제르’에 반드시 ‘돕다’라는 개념을 담기보다는 ‘구하다’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네게드(נָגַד)’는 ‘~의 앞에’, ‘~에 마주하여, 반대하여’를 뜻하고, ‘케넥도’는 ‘그에 어울리는, 알맞은, 적합한’을 나타낸다.<sup>10)</sup> ‘에제르 케넥도’를 ‘그를 구해주는 상대’ 또는 ‘그에게 알맞은 구원자’라고 하면 어떨까 싶다.

## 2.3. ‘남자-그의 아내’를 ‘남자-여자’로(창 2:24)

『개역개정』은 24절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라고 번역한다. 여기서 ‘남자-그의 아내’는 같은 어근인 ‘이쉬(אִישׁ)-이슈토(אִשְׁתּוֹ)’를 쓴다. 두 가지 이유로 ‘남자-여자’라고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배필”, <https://stdict.korean.go.kr> (2022. 6. 10.).

8) F. Brown, S. R. Driver, and C.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UK: Clarendon Press, 1953), 740.

9) V. R. Mollenkott, *Omnigender: A Trans-religious Approach* (Cleveland, OH: Pilgrim Press, 2007), 102; D. Carr, *The Erotic Word: Sexuality, Spirituality, and the Bible* (Oxford, UK: Oxford Press, 2003), 31-33; H. Gossai, “Divine Evaluation and the Quest for a Suitable Companionship”, *Crosscurrents* 52:4 (Winter 2003), 545-548, 551.

10) *BDB*, 617.

번역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첫째, 우리말에서 ‘남자-아내’는 짝을 이루는 말이 아니고, ‘남편-아내’가 짝을 이루는 말이다. 둘째, 문맥은 결혼 제도를 뜻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결합을 뜻하므로 결혼 제도와 연관된 ‘아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히브리어에 ‘결혼하다’는 없지만 결혼 맥락에서 ‘취하다’(קָחָה, take)는 동사가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종에게 “너는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취해라”고 명할 때(창 24:7, לָקַחְתָּ אִשָּׁה לְבָנִי 라카흐타 이샤 리브니) 이 관용구를 사용한다. 여기 창세기 2:24에는 이 표현이 없다.

20세기 초에 헤르만 궁켈(H. Gunkel)은 24절을 결혼이나 일부일처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11)</sup> 여러 학자들은 이 구절이 인간의 욕망을 설명하는 원인론(etiology)이라고 해석했다.<sup>12)</sup> 게다가 24절은 구약 성서가 보여주는 결혼 전통에도 어긋나는데, 여자가 친정을 떠나 시가 쪽에 와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자신의 가족을 떠나 여자에게 가는 가모장제 및 처가 거주(matrilocal)를 보여주기 때문이다.<sup>13)</sup> 요약하자면, 24절은 결혼이 아니므로 ‘남자-여자’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슈토’를 ‘그의 여자’라고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자’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럴 경우에 소유격을 잘 쓰지 않는 한글 구문법을 따르고, 또한 맥락에서 여자가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냥 ‘여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남성의 소유인 양 표현되고 싶지 않은 여성 독자를 배려할 수 있다.

### 3. 히브리어 ‘조나(זָנָה)’를 일관되게 ‘성매매자’로

‘조나(זָנָה)’는 ‘간음하다’, ‘매춘하다’, ‘매춘부가 되다’(to commit

11) H. Gunkel, *Genesis*, M. E. Biddle, trans.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13.

12) H. Gunkel, *Genesis*, 13; G.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J. H. Marks, trans.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1972), 85; C. Westermann, *Genesis 1-11: A Commentary*, J. J. Scullion S. J., trans. (Minneapolis, MN: Augsburg Press, 1974), 233.

13) 그렇다면 24절의 동사 ‘아자브(עָזַב)’은 ‘떠나다’가 아니라 ‘버리다’(abandon, forsake)로서 남자가 부모를 ‘저버리고’ 여자에게 가는 것이다. 테리엔(S. Terrien)과 웬함(G. Wenham)은 이 구절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출 20:12; 신 5:16)과 원칙을 충격적으로 뒤엎는다고 본다. S. Terrien, *Till the Heart Sings: A Biblical Theology of Manhood and Womanhood* (Philadelphia PA: Fortress, 1985), 14-15; 고든 웬함, 『창세기: 1-15』, 박영호 역 (서울: 솔로몬, 2001), 188;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1 (Waco, TX: Word Books, 1987).

fornication, be a harlot)를 뜻하는 동사 ‘자나(זָנָה)’에서 나온 명사이다.<sup>14)</sup> 한글 성서에서 동사는 ‘음행하다’, ‘행음하다’, ‘음란하다’ 등으로 주로 번역되었고, 명사는 ‘창녀’(예를 들어, 창 34:31; 38:15, 21, 22), ‘창기’(예를 들어, 왕상 3:16; 사 1:21; 겔 16:31), ‘기생’(예를 들어, 수 6:17, 22, 25; 사 11:1; 사 23:15), ‘음녀’(예를 들어, 잠 6:26; 사 23:16; 57:3) 등으로 번역되었다. 이 중 ‘음녀’는 문맥에서 필수적일 경우 선택 가능한 번역어일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성매매자’와 같은 단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첫째, ‘조나’를 최대한 한 번역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같은 잠언 안에서 ‘조나’는 ‘음녀’(6:26; 23:27), ‘기생’(7:10), ‘창기’(29:3) 등으로 다르게 번역되었다. 이사야 23장의 경우 나란한 구절인 15, 16절에서 ‘조나’가 ‘기생’과 ‘음녀’로 각기 다르게 번역되었다. 문맥이 요청하지도 않는데 한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 다른 명사로 번역하는 것은 독자에게 원어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게 한다.

둘째, ‘창기’와 ‘기생’은 과거 특정 시대의 단어이고 현대 독자에게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창기’를 ‘몸을 파는 천한 기생’으로, ‘기생’을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또는 풍류로 흥을 돋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로 간단하게 정의한다.<sup>15)</sup> 이 두 정의에서 주요 차이는 ‘기생’에 매음 개념이 없다는 점이다. 『개역개정』의 번역은 ‘창기’와 ‘기생’을 동의어인 양 쓰지만 ‘기생’은 사실 많은 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조선 말기에는 관기와 더불어 기생사회가 있었고, 후자는 기생 등급을 일패, 이패, 삼패로 나눠 구분했다.<sup>16)</sup> 일패와 이패 기생은 삼패 기생과 달리 매음이 없었다.<sup>17)</sup> 연구자들은 기생의 정체를 하나로 일괄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창기’와 ‘기생’의 의미를 상세히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가 동의어도 아닌데다가 시간에 따라 의미가 변한 옛말이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정확히 상응하는 직업이나 역할이 없는 말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셋째, ‘창녀’라는 성서 번역어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 용어가 번역어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이 말이 한국사회에서 이미 1980년대에 해체를 겪었기 때문이다. 구약학자 필리스 버드(P. Bird)가 ‘조나’에 대해 연구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버드는 히브리어 개념에서 창녀가 결혼 상대가 아닌 남자와

14) BDB, 275.

1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창기”, “기생”, <https://stdict.korean.go.kr> (2022. 6. 10.).

16) 참조, 권도희, “20세기 관기와 삼패”, 『여성문학연구』 16 (2006), 81-119.

17) 권번문화예술원, “권번이야기 - 기생과 기녀의 차이점”,

<https://blog.naver.com/gwonbeon6> (2022. 6. 10. ).

의 성적인 행동으로 규정되는 직업, 문란하거나 정숙하지 않은 여자, 또는 습관적인 간음자 등 여러 의미를 갖는다고 관찰한다. 버드는 성서에서의 창녀와 간음이 남성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여성의 프로필이라고 지적한다.<sup>18)</sup> 이는 현대에도 ‘창녀’ 낙인이 어떻게 성매매 여성만이 아니라, 젠더 규범에서 벗어난 다양한 여성을 성적 ‘일탈자’로 포획하는지 젠더의 작용력에 관한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sup>19)</sup> 예를 들면, 열왕기상 3장의 재판 이야기에서 화자는 매춘 상황을 알 수 없는데도 두 여자를 ‘조나’라 부른다. 두 여자가 규범에 어긋나는 생활양식과 태도를 가졌고, 공동체가 그들에게 낙인을 찍어 차별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sup>20)</sup>

‘자나’라는 어근을 가진 말이 구약성서에 93회 쓰인 것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성매매 및 성매매자의 생활방식을 묘사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이방 나라를 은유적으로 비난할 때 훨씬 더 빈번하게 쓰였다는 점이다.<sup>21)</sup> 여기서 주지할 것은 남성 청중, 곧 이스라엘의 배교를 여성 은유로, 곧 남성 이스라엘이 창녀와 같다고 표현하는 점이다(예를 들면,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면에서 ‘조나’를 반드시 ‘~녀’가 들어가는 여성형 단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다. 물론 화자는 남성 청중을 여성화하여 수치와 모욕이라는 수사적 효과를 내고자 하기는 했다.<sup>22)</sup>

분명한 것은 현대의 여성 독자가 ‘창녀’라는 단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일찍이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 독자는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성서의 특정 구절과 표현에 대해 딜레마를 겪는다.<sup>23)</sup> 여성 독

18) P. Bird, *Missing Persons and Mistaken Identities: Women and Gender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7), 224.

19) 참조, 원미혜, “여성의 성 위계와 ‘창녀’ 낙인: 교차적 작용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0:2 (2011), 45-84.

20) 참조, Y. Yoo, “The Demand to Listen to Korean ‘Comfort Women’ and to Two Biblical Women”, S. Scholz, ed., *The Oxford Handbook of Feminist Approaches to the Hebrew Bibl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97-111.

21) 예를 들면, 레 17:7; 20:6; 민 15:39; 사 57:3; 호 4:11-14; 렘 2-3; 겔 16 등.

22) 버드(P. Bird)가 가장 먼저 이를 지적했다. P. Bird, “To Play the Harlot: An Inquiry into an Old Testament Metaphor”, P. Day, ed., *Gender and Difference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89), 89; 참조, J. Claassens, “‘Like a Woman in Labor’: Gender, Postcolonial, Queer and Trauma Perspectives on the Book of Jeremiah”, C. Sharp and C. J. Maier, eds., *Prophecy and Power: Jeremiah in Feminist and Postcolonial Perspective* (London, UK: Bloomsbury T&T Clark, 2013), 117-132.

23) A. Brenner, “An Afterword: The Decalogue—Am I an Addressee?”, A. Brenner, ed., *A Feminist Companion to Exodus to Deuteronomy*, *The Feminist Companion to the Bible* 6 (Sheffield, UK: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255-258.

자는 본문 속에서 비하되고 비난받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 학자들은 또한 본문의 여성비하적 은유가 지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본문 밖 독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이미 많이 논의했다.<sup>24)</sup> 본문에서 그런 부분을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의미를 보존하면서도 순화적 번역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창녀’를 무슨 말로 바꾸어야 할지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논의가 있다. ‘성노동자’라는 말이 제안되기도 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학자 정희진은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성노동’ 담론이 여성 혐오에 근거한 무지의 산물이며, 성매매의 핵심, 즉 왜 이 노동이 주로 여성에게만 부여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sup>25)</sup> 다시 말해서, ‘성노동자’라는 용어는 성매매자가 여성일 때 겪는 술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가리므로 제안할 만한 용어가 아니다.<sup>26)</sup> 그래서 새로운 개정판에 ‘창녀’, ‘창기’, ‘기생’ 대신 ‘성매매자’를 쓸 것을 제안한다. 문맥이 요할 경우, ‘성매매 여자’, ‘음란한 여자’, ‘음녀’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 예레미야 44:19 -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를 ‘우리 남편 없이’로

예레미야는 44장에서 이집트 바드로스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에 대해 비난한다. 그러자 그들은 저항하며 조상들과 유다 지도자들도 옛적부터 하늘의 여왕을 섬겼으며 자신들도 계속 섬기겠다고 한다. 여자들도 말하기를 하늘의 여왕에게 제물을 만들어 바칠 때

24) 예를 들면, 게일 A. 이, “호세아”, 캐롤 A. 뉴섬, 샤론 H. 린지 편,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 구약 편』,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524-528; C. A. Newsom and S. H. Ringe, eds., *The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1998).

25) 정희진, “추천사”, 레이첼 모랜, 『페이드 포: 성매매를 지나온 나의 여정』, 안서진 역 (서울: 안홍사, 2019), 11; R. Moran, *Paid for: My Journey through Prostitution* (Dublin: Gill Books, 2013), 1. ‘성 노동’에 대한 찬반 논의에 대해서는 윤보라 외, 『그럼에도, 페미니즘: 일상을 뒤집어보는 페미니즘의 열두 가지 질문들』 (서울: 은행나무, 2017) 참조.

26) 어릴 적에 성매매에 내몰렸다가 벗어나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책을 낸 모랜(R. Moran) 같은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랜은 수치심에 대해 오랫동안 숙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한 마디씩 어렵게 꺼내는 동시에, 방대한 자료를 인용하며 성매매 내에서 작동하는 구조적인 기제들과 성매매가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정신적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참조, 레이첼 모랜, 『페이드 포』. 아일랜드는 모랜 같은 반성매매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성구매자를 형사 처벌하는 노르딕모델을 채택했다.

‘우리의 남편들 없이(אנשינו מבלעדי מיבל라데 아나쉐누)’ 했겠냐고 한다(44:19). 원문의 ‘우리의 남편들 없이’를 『개역개정』은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라고 번역하고, 『성경전서 새번역』은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라고 번역한다. 원문의 ‘남편들 없이 했겠냐’는 말은 남편들과 함께, 남편들이 아는 상태에서 그런 예배 행위를 했음을 나타낸다(7:18 참조). 남편의 ‘허락’이라는 번역어는 세 가지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 첫째, ‘허락’은 ‘미발라데’의 뜻, ‘~을 제외하고(apt from)’, ‘~없이(without)’에서 너무 나갔다. BDB가 이 말에 ‘~의 동의나 지식 없이’라는 해석을 제시하기는 한다.<sup>27)</sup> 하지만 번역에 ‘동의’, ‘허락’이라는 별도의 단어를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남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제의는 대중적이었기에 남편 몰래 하거나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셋째, ‘허락’이라는 번역어는 이 여자들의 주체성을 무시한다.<sup>28)</sup> 7장에서 가족 구성원이 고루 역할을 맡아 하늘의 여왕 제의에 참여한 반면, 여기 44장에서 “남편들은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44:15)고 하여 여성이 이 제의의 주체로 나온다. 이 여성들이 풍요 여신을 야웨 종교와 연관하여 이해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나 이들의 배교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미발라데 아나쉐누’를 원문대로 ‘우리의 남편 없이’ 또는 ‘우리 남편을 빼고’로 번역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 5. 이사야 23:4 - ‘청년들-처녀들’을 ‘젊은 남성-젊은 여성’으로

『개역개정』은 이사야 23:4를 “... 나는 ...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고 번역한다. 여기서 ‘청년들’과 ‘처녀들’은 각각 ‘바후림(בְּחֹרִים)’과 ‘베톨로트(בְּתוּלוֹת)’의 번역어이다. ‘베톨라’는 반드시 ‘처녀’(virgin)만이 아니라 결혼 연령의 소녀 및 젊은 여성을 가리킨다.<sup>29)</sup> 또한 우리말에서 ‘청년-처녀’는 어울리는 짝말이 아니다. ‘처녀’라는 말을 쓰려면 ‘총각’이 어울리는 짝말이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의미가 퇴색된 옛말이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처녀’라는 말을 싫어한지 오래

27) BDB, 116.

28) 오코너(K. M. O'Connor)도 이들 여성을 종교 주체로서 긍정적으로 본다. 캐슬린 M. 오코너, “예레미야”, 캐롤 A. 뉴섬, 샤론 H. 린지 편,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 구약 편』, 452, 455-456.

29) G. J. Wenham, “B<sup>o</sup>tulah, ‘A Girl of Marriageable Age’”, *Vetus Testamentum* 22 (1971), 326-348.

되었다. 요즘에 무난한 짝말은 ‘젊은 남성-젊은 여성’인 듯하다.

## 6. 나가는 말

이밖에도 ‘여인’을 ‘여자’라고 하면 좋겠다. 성서에서 ‘여인’이라는 말을 볼 때, 성서학자들이 논문에서 ‘여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볼 때 곤혹스럽다. 이 글의 앞에서 지적한 것과 비슷한 맥락 때문이다. ‘여인’이 쓰이던 시절에 여성의 지위가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고 역할에 큰 제한이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다. ‘여인’은 ‘청순가련’과 어울려 말에 ‘때’가 묻었다. ‘여인’은 지금도 시와 문학에 쓰이지만 신문기사, 논문 등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다. 요즘 추세는 심지어 사극에서 현대어를 쓰기도 한다. 그만큼 시청자와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여성학 학자들이 불특정 다수, 복수일 때 ‘여성’을 쓰고, 개별 존재일 때 ‘여자’를 쓸 것을 제안한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약 20년 전에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여성단체의 24주년 행사 설교에서 ‘아가씨’라는 단어를 썼다가 크게 지적받은 적이 있다. 필자는 한국사회에서 특정 단어들에 계속 해체되었던 것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미 ‘아가씨’는 여성이 원치 않는 단어가 되어 있었다.

성서 속 그녀들은 오늘날 우리의 번역어에 대해 직접 제안하거나 항의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녀들을 부르는 방식에 대해 분명 완벽한 재현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성서 번역자들이 주로 중년 이상 남성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여성학과 여성신학의 논의와 현대 여성 독자의 감수성을 반영하여 번역어를 잘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몇 가지 예를 가지고 다양성과 포괄성이라는 시대정신 속에서 여성의 관점으로 개정 번역어를 제안했다. 필자가 제시한 번역어보다 더 좋은 표현이 나오면 무척 반가울 것이다. 요점은, 앞에서 지적한 기존 번역어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역개정』을 실제 개정할 때 이 글이 제시한 몇 가지 예 말고도 여성, 다양성, 포괄성을 성서의 다른 부분에도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투고 일자: 2022년 6월 15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7월 22일)